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 되는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했다.

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불교계 유일 종립 병원으로서 참가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 병원은 행사에 참석한 스님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인 29일 여성의 적 유방암 예방을 위해 외과 객범석 교수가 참여해 ‘유방암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와 함께 한방소아청소년과 민상연 교수의 한방 건강 상담 및 사상체질검사에 20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30일은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한 체험과 재활의학과 자세 교정 전문의가 바른 자세 상담 및 ‘꼭꼭 체조’, ‘굿 밴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밖에도 박람회 동안 스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소개 및 혈압, 혈당체크 등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 불교계 의학발전을 이끌어갈 성공적인 역할 수행과 불자 및 스님들의 건강을 위해 다채로운 불교 행사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동일 한방병원장, 고양 지역 모임 ‘고양회’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은 지난 3월 22일 본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고양시 고양회 정기모임’과 관련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해 ‘어떻게 걸어야 할까?’를 주제로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올바른 걷기의 기본자세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히, 걷기 방법으로 1회 45분간 주 4회를 걸을 것을 권장했으며, 강도, 시간, 횟수, 속도, 보폭과 시선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부상 위험이 적은 걷기 운동은 중년에게 추천하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강조하며, 꾸준히 운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이진호 의료원장 등 고양시 15개 주요기관장이 참석해 고양 지역과 병원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김포 가연마을 찾아 무료봉사 진행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3월 31일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중증 장애시설 가연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를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공의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행정직 등 연우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연우회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해 평소 병원을 찾기 힘든 환우들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 및 재활치료, 수액요법 등 다양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가연마을과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매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간호부, 우수 강사 부서 베스트 프리셉터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최근 ‘2017년도 우수부서, 우수강사 및 베스트 프리셉터’를 선정해 시상했다.

프리셉터 제도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병원생활에 보다 원만한 적응을 위해 경력 간호사가 일대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제도이다.

이번엔 선발된 우수 강사부서는 2017년도 간호실무 향상과정 및 간호부 QI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102, 111, 121병동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 해 동안 강사활동 및 프리셉터 활동에 참여한 간호사 중 우수강사 3명 및 베스트 프리셉터 11명을 선정해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했다.

진영숙 간호부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늘 간호업무 능력 향상과 강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는 간호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